서남권 · 동북권 르네상스로 도시균형발전이 실현됩니다.

권역별 르네상스 지역발전소식

2011년 9월호(통권 28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발전계획추진반

◇ 서남권 르네상스

- 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센터, 버스↔지하철 환승 편해졌다 ····· p 1
- 신도림 중앙버스정류소, 8.15(월)부터 더 편리해진다 ····· p 2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p 3

◇ 동북권 르네상스

- SH공사, 답십리 17구역 정비사업 참여 ····· p 4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설치 종교계가 앞장선다 ····· p 5
- 서울시, 올해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 15개 추가 설치 ····· p 6

◇ 알립니다

- 서울 도심 대형 건물 지으려면 차로 확장 먼저 ····· p 7

구로디지털단지 환승센터 버스↔지하철 환승 편해졌다

- 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센터 펜스 철거로 버스·지하철 환승거리 50m 단축
- 넓은 보행 공간 확보로 혼잡 해소 및 무단횡단 방지로 교통사고 예방
- 서울시내 4개 버스환승센터 지속 모니터링·의견 수렴으로 편리한 이동환경 제공해 나갈 것

서울시는 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버스·지하철 간 환승 불편을 줄이고자 환승센터 내 펜스를 철거해 환승 이동거리가 60m→10m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센터와 지하철역 구간에는 환승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어 그동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펜스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나 서울시는 지난 7월 구로디지털단지역 출입구 개선 공사를 완료하면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펜스를 철거했다.

이번 펜스 철거로 인해 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센터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사이의 환승거리가 50m 이상 단축되어 버스↔지하철 간 환승이 편리해졌다.

서울시는 2005년 12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의 대부분이 버스, 지하철 간 환승을 하고 있어 그동안 환승을 위해 펜스를 둘러가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됐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펜스철거로 하루 평균 1만6천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환승센터 승강장에 넓은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혼잡이 해소되고, 그동안 펜스를 넘어 무단횡단 하던 사례가 줄어들어 교통사고가 예방되는 등 이동 환경 및 시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센터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청량리역, 여의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 환승·보행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편리한 이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센터 전경>

(교통운영과 ☎3707-8727)

신도림 중앙버스정류소 8.15(월)부터 더 편리해진다

- 신도림역 중앙버스정류소, 역 쪽으로 이전 8.15(월)부터 본격 운영
- 버스↔지하철 환승거리 250→160m로 단축
- 중앙버스정류소 면적 및 횡단보도 폭 늘려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도심방향 버스정차면 4→5면으로 늘려 버스 진입대기·승하차시간 단축

서울시는 신도림역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승 불편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시행했던 신도림역 중앙버스정류소 이전공사를 8월 15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로 경인로 도심방향 중앙버스정류소와 신도림 지하철역 사이의 환승거리가 250→160m로 단축되고 버스↔지하철, 버스↔버스 간 환승이 편리해진다.

경인로는 인천·부천시와 서울 서부지역을 도심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축으로 2005년 7월부터 중앙차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신도림역 중앙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지하철로 환승하는 ‘버스~지하철 간 환승거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앙버스정류소 면적 및 횡단보도 폭 확장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서울시는 이번 이전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정류소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차로버스정류소의 폭을 3→4m, 길이를 80→120m로 넓혔다.

이로써 출·퇴근 시간대에 최대 이용 승객수가 1천5백명 이상 몰리는 신도림역 중앙버스정류소 유효면적이 기존 168㎡에서 384㎡으로 확장돼 시민들이 보다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횡단보도 폭 또한 8→16m로 2배 확장해 보행자의 횡단 대기공간을 늘림으로써 이용밀도를 1명당 1.0㎡ 수준으로 낮춰 안전하고 쾌적한 도보 환경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도심방향 버스정차면 늘려 버스 평균 속도 23km/h로 향상

도심방향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의 버스정차면을 현재 4→5면으로 확장되어 승객의 승하차시간이 단축되고 혼잡시간에 버스가 정류소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출·퇴근 시간대 버스 평균속도가 약 20→23km/h로 향상될 전망이다.

정류소 인근 노후한 교통시설물 정비하고 띠녹지 식재, 배수시설 확충

서울시는 정류소 확장·이전뿐만 아니라 주변 공간에 띠녹지를 식재하고 태양광 표지병을 설치해 자연친화

적인 정류소로 탈바꿈시킬 뿐만 아니라 노후한 교통안전시설물도 정비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노면에 물이 고여 대기하는 시민에게 빗물이 튀거나 버스를 승하차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관을 매설해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마국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장은 "이번 신도림역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정류소 정비에 그치지 않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0.4km의 기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지속 모니터링 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도림역 중앙버스정류장 위치도>

(교통운영과 ☎6361-3888)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 관악구, 영등포구, 동작구에서 9월 6~7일 열려
- 환경영향평가서 해당구청 환경과에서 공람
- 우선협상자와 협상 진행중, 2011년 말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계획

서울시는 서울 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신림선(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시설 및 정거장, 노선명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림선 경전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은 물론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9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거쳐 관악구, 영등포구, 동작구에서 열리며 환경영향평가서는 해당 구청 환경과에서 공람이 가능하다.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09년 제3자 공고를 통해 2010년 3월 (가칭)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주간사 고려개발(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현재 노선 및 정거장, 총사업비 및 투자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11년 말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할 계획이다.

금년말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시작함으로써 서울시 남부지역의 대중교통확충을 위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림선 경전철이 완공되면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림선 경전철 노선도>

(도시기반시설본부 ☎772-7156)

SH공사 답십리 17구역 정비사업 참여

- 일반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최초 사업시행
- 공공사업시행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서울특별시 SH공사가 '답십리 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고 8월 2일 밝혔다. SH공사가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답십리 17구역의 경우 기존의 조합시행방식과는 달리 토지등소유자들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SH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관할 구청에 요청해 SH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200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답십리 17구역은 조합시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공공시행방식으로 변경해 지난 2010년 4월 SH공사와 사업시행을 위한 가약정을 체결한 뒤 같은 해 9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 바 있다.

답십리 17구역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14,141㎡(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18%, 평균 15.3층으로 26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사업시행으로 투명성·공정성 보장

최근 주택경기 침체 속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조합 시행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각종 소송, 비리 및 시공사와의 갈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업추진과정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재생사업 추진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비용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S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SH공사는 이번 답십리 17구역의 사업시행을 통해 각종 부조리와 갈등이 만연한 기존 조합시행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점을 살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구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SH공사, 도시재생사업 참여 적극 추진

SH공사는 답십리 17구역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SH공사는 재생사업의 비중을 늘려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조직을 개편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 지역의 공공관리제 적용 사업장이 643곳에 이르는 만큼 위탁관리자 선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의 도시재생사업 참여는 주택경기 침체와 조합 내부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 시장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답십리 17구역 조감도>

(SH공사 ☎3410-7425)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설치 종교계가 앞장선다

- 서울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데이케어센터 18개소 설치 협약체결
- 이는 최근 3년간 서울시 설치 목표량의 13%에 해당
- 현재 중구 신당동 성당 등 12개소를 운영 중이며 6개소는 설치 중
-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향상, 높은 신뢰도로 만족도 높아

서울시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 보호 및 보호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주야간 어르신 보호시설인 '서울형데이케어센터'를 2008년 116개소의 시설에서 2011년말까지 139개소를 확충하여 25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9년 10월 (재)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보호를 위한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인 주거밀착형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1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개소는 설치중에 있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서울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간 MOU을 체결하여 서울시 3년간 시설확충 목표량(139개소)의 13%인 18개소의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 노인복지 특히 치매노인과 보호자들의 복지서비스에 일익을 담당해준 것은 매우 의미있고 바람직한 사례가 되고 있다.

서울형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부지 확보와 재정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부지매입, 유휴건물 활용 등 사업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설치비를 부담하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신당동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성당 밖의 건물을 자부담으로 매입하여 설치하는 등 교구 산하 모든 성당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기존 성당내 설치 2개소, 성당 부속건물(교육관) 활용 4개소, 신축 성당내 설치 5개소, 성당 부지내 설치 3개소, 서울대교구 산하 건물 이용 1개소, 부지(건물)매입 설치 3개소 등 총 18개소를 교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추진중이다.

2010년 3월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설치 제1호인 신당동성당 데이케어센터가 개원한 이래로 현재 가톨릭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12개소가 설치·운영되어 200여명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어르신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건강체크, 운동, 다양한 치매치료 프로그램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된 성당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로 이용 어르신 뿐만아니라 보호자들이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지금까지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 지역주민들의 데이케어센터 이용대상자에 대한 오해로 신축부지 확보와 리모델링에 반대하여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와 협의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노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 중 인증된 데이케어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을 우선으로 신규 설치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데이케어센터의 4대영역(기본요건, 맞춤케어, 안심케어, 이용권보장) 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시설은 인증시설로 지정하여 이용어르신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주거밀착형으로 차량을 이용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들이 모시고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밤10시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직장에 다니는 보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주말 및 휴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56개소로 늘어났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11년 4월부터 서울형 복합요양시설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1개 시설에 장기요양, 단기보호, 데이케어센터 3종류의 사업을 운영하여 데이케어센터 이용중에 치매노인 가족들이 가족경조사, 해외출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단기간(15일 이내)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단기보호에 입소하여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25개 자치구별 1개소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시는 치매전문 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치료를 위해 힘쓰고, 보호자들이 걱정없이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과 지속적인 시설확충으로 「치매 걱정없는 서울」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 BI>

(노인복지과 ☎3707-9215)

서울시 올해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 추가설치

- 지하도로 다니던 교차로·육교철거 지역 등에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개선
- 한성대입구역·성신여대입구역·목1동 주민자체센터 앞 등 총 15개소 예정
- 올해 8월, 이미 종로4가·사직동 주민자치센터앞 횡단보도 신설로 불편해소
- 자동차 중심의 서울도로를 시민 안전·편의 배려하는 걷기 좋은 도로로 만들어
-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 위해 횡단보도 지속 정비해 나갈 것

서울시가 길을 건너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올해 말까지 서울시내 15개소에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를 추가 확충한다.

시는 횡단보도가 없어 지하도로 다녔던 교차로, 육교철거로 우회하던 지역 등에 '시민 위주의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보행 개선사업'으로 작년까지 잠실역 교차로, 을지로입구 교차로, 사당역 교차로, 신림역 교차로 등 총 26개 곳에 공사를 마쳤다.

올해 추가되는 15개 중, 종로4가 교차로와 사직동 주민자치센터 앞 삼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7월 말까지 시험운영을 마쳤으며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횡단보도 3개 건너야 했던
종로4가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편의 높여

종로4가 교차로는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3개를 건너거나 100m정도 떨어진 지하상가를 이용해야 했지만 횡단보도 설치로 불편이 개선됐다.

2003년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면서 원활한 교통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가 보류된 상태였으나 서울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광장시장 쪽으로 건너려는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확인돼, 주민의견 수렴과 종로구서울지방경찰청 및 혜화경찰서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거쳐 현행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사직동주민센터 앞 삼거리에 횡단보도 신설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직동 주민자치센터 앞 삼거리는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중·고등학교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행이 잦고,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를 신설했다.



<사직동 주민자치센터(앞) 삼거리 횡단보도 설치·운영 현황>

나머지 지역은 한성대입구역, 성신여대입구역, 목1동 사무소앞, 남산공원 앞, 천호대로 광장사거리 13개소가 예정돼 있다.

2012년부터 보행자 및 보행교통 편의와 관련된 마스터플랜 마련해 근본적 정비

임동국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장은 "2012년부터는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횡단보도 정비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보행교통 편의와 관련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보행단절 구간을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행자전거과 ☎3707-8564)

알립니다

서울 도심 대형건물 지으려면 차로 확장 먼저

- 서울시, 대형 공사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개선책 마련
- 도심 내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장, 건축공사 앞서 차로 및 보도 우선 설치토록
- 계획수립 단계 사업장과 이미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 상황에 맞게 단계별 추진
- 중구 삼일로변 시범적용 결과,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교통혼잡비용 208억원 절감
- 향후 성과 분석해 재개발, 재건축 등 대형사업장에도 확대적용 예정

앞으로 서울 도심 주요 도로변과 인접한 곳에서 대형 건축공사를 하는 사업장은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주변 차로를 확장해야 한다.

즉, 공사 순서를 바꿔 2~3년 후에 확장될 차로를 미리 확보하고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동안은 건물을 다 짓고 주변 교통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변 차로를 확장했으나, 이로 인해 공사 기간 중 교통체증과 보도점유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어 서울시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

도심 내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장, 건축공사 앞서 차로 및 보도 우선 설치

서울시는 현재 도심에서 추진 중인 35개 사업장을 포함한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으로 공사착공 후 차로 및 보도를 건물보다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8월 3일 밝혔다.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24개소와 착공예정인 11개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162개 사업장이다.

계획수립 단계 사업장과 이미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 상황에 맞게 단계별 추진

서울시는 차로 및 보도 우선확보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사업장은 도시·건축계획 심의 시 다른 공사에 우선해 차로공사를 먼저 하도록 시행조건을 부여하고 공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해 가설휀스 이전비 등 추가공사비용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미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은 공사 진행 여건 등에 따라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로공사를 우선 시행토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중구 삼일로변 시범적용 결과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교통혼잡비용 208억원 절감

앞서 서울시는 상습정체구간인 중구 삼일로변에 위치한 '저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에 차로 및 보도 우선설치를 시범 적용한 결과, 삼일로 중앙극장 사거리 교차로의 교통체증을 3년 이상 앞당긴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울시는 차로 및 보도 우선설치로 교통혼잡비용 208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었다.



<차로 및 보도공사 전·후 이미지 현황>

서울시는 이번 차로 우선확보 방안을 통해 도심의 상습정체구간인 서소문로, 삼일로, 한강로 등의 교통 불편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대기시간에 따른 연료낭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공사 프레임을 바꿨다"며 "향후 성과를 분석해 재개발, 재건축 등 대형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시개발과 ☎2171-2512)

권역별 르네상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자유롭게 의견주세요 @seoulwithyou (트위터)
- ✓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http://urban.seoul.go.kr
- ✓ 동북권 르네상스 블로그
  http://blog.naver.com/dongbukseoul
- ✓ 서남권 르네상스 블로그
  http://blog.naver.com/seonamseoul